

마스크 해제·중국 열렸지만...광주·전남 기업 경기 '암울'

전월 대비 1.4P 상승한 82...제조업 체감경기 6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심리 위축...대·중견기업 호전, 중기는 악화 예측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과 계절적 요인, 마스크 해제 효과 등의 기대감으로 체감경기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중소중)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4월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2.0로, 전월(80.6)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90.9)에 비해 8.9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등 여전히 경기전망은 어

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전월(75.4)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79.0로 전망됐고, 전남은 전월(86.7)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85.0로 전망됐다.

이런 분위기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광주상의가 광주지역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2로 집계됐다. 광주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지수가 지난 분기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금리인상 장기화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정책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1분기 실적은 59로, 원자재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수출입 부진 등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올 2분기 업종별 전망은 '식품료(120)', '고무·화학(109)', '철강·금속가공(108)', 'IT·전기·가전(111)' 등은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봤으나, 그 외의 업종은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료' 업종의 경우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단체급식 납품 확대 등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로 매출 증가를 예상했고, '고무·화학'과 '철강·금속가공'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생산, 투자 활동 회복에 대한 기대로 경기 호전을 전망했다. 'IT·전기·가전' 업종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106)은 글로벌 경기회복 움직임과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면서 경기 호전을 전망하였으나 중소기업(89)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과 매출 하락 우려로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59.5%)', '물가·금리인상(43.8%)',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38.0%)', '원부자재 수급불안(19.8%)',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7.4%)', '지정학적 리스크(10.7%)' 순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2분기는 주요 산업들의 경영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2023 새봄담은 예금' 출시 홍보 행사

5월 31일까지 한시 판매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30일 송정농협(조합장 차주철)에서 31일부터 판매하는 '2023 새봄 담은 예금' 상품 출시 홍보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념행사에는 고성신 본부장과 차주철 조합장, 이동현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이 참여했으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설명과 안내장을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2023 새봄 담은 예금은 신년 새봄을 맞아 출시된 기획상품으로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은행사가 진행되며 영업점과 농협 콕뱅크·스마트뱅킹을 통해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가입고객 45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1억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순금 골드바와 안마의



자, 김치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고성신 본부장은 "새봄을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풍성한 사은행사를 준비했다"며 "예금 가입과 함께 새봄에 어울리는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자활기업들 창업자금 신청하세요"

최대 운영자금 1억·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지원

전남도가 30일부터 최근 창업하거나 창업 예정인 자활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받는다. 지원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자활기업 창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최대 1억원 이내 무상지원, 점포 임대료 지원 보증금 최대 3억원 이내 무이자 용자지원, 취약계층 고용자 근로유지 시 성과급으로 최대 200만원 지원 등이다.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총 6차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며, 창업 후 1회 지원이 원칙이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자활기업의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접수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최대 5년간 분기별로 2회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

며, 1억원 초과일 경우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근로유지 성과급의 경우 창업 당시 수급 및 차상위자 구성원을 6개월 고용 유지할 경우 100만원, 12개월 유지할 경우 1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전남의 기업은 총 7개소로, 운영자금 7천(5억9900만원) 임대보증금 2천(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광영호 전남도사회복지과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자활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자활기업들과 취약계층의 탈수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효성티앤씨, 페페트병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방진복 만든다

1000만개 재활용...리사이클 섬유 리젠으로 제작

효성티앤씨가 글로벌 리사이클 섬유 브랜드인 '리젠'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착용하는 방진복을 만든다.

효성티앤씨는 23일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비롯해 화성, 수원 등 인근 지자체에서 수거한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젠으로 친환경 방진복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방진복 제작에 재활용되는 페페트병은 약 1000만개다.

리젠은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효성티앤씨의 리사이클 섬유다. 글로벌 친환경 인증 전문기

관인 '컨트롤 유니언'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글로벌 리사이클 표준 인증(GRS)을 획득한 국내 대표 친환경 섬유다.

효성티앤씨는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 펌팩 사업장 일부에 리젠 방진복을 공급했고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사업장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젠은 최근 ESG경영에서 친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많은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CGV, 롯데리아 등의 기업 유니폼에 적용된 바 있다.

친환경성과 더불어 냉감(리젠 아스킨), 내구성(마이판 리젠 로빅), 향균(리젠 에어로실버), 신축성(리젠 자나두), 통기성(리젠 에어로콜) 등 각종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섬유로도 제작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티앤씨의 글로벌 친환경 섬유 기술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방진복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효성티앤씨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적용 확대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 유통 대기업 특혜 행정 중단" 촉구

광주지역 상인연합회

광주지역 상인연합회가 유통 대기업에 주어지는 특혜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금호월드 상가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유통 대기업에게 일방적인 편익을 제공을 중단하고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시가 제정된 '광주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입점 효과만 일방적으로 홍보할 뿐 평가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도로 83m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고 117m의 대체도로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신세계 백화점의 변경 계획은 금호월드 방문 고객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영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신세계 확장고 인근에 '더 현대'까지 들어선다면 역대 최악의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옛 모텔하우스 부지를 합쳐 백화점을 확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해 이날 광주시로부터 일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